

Week 3 제5강

Exercise 1 새롭게 알려진 돌고래의 행동 특성

The new millennium has brought discoveries about dolphin cognition, emotion, and consciousness, creating a bridge to what is known about dolphin behavior with an emphasis on communication.

New data on dolphin intelligence allow us to obtain a broader picture of the inner lives of dolphins.

We see that dolphins exhibit sophisticated characteristics previously attributed only to humans and possibly to other higher primates.

We know that dolphins understand syntax, semantics, and word order, and are capable of mirror-self-recognition, comprehension of pointing gestures, and understanding reference to body parts.

They can identify the same abstract object using vision or echolocation.

There is evidence that dolphins have culture.

For instance, killer whales have vocal dialects that are distinct to each family group and are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some bottlenose dolphins use sponges as tools when foraging along the sea floor.

새 천년에 들어 돌고래의 인지, 감정, 의식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져서, 소통에 중점을 두고 돌고래의 행동에 대해 알려진 것을 잇는 다리를 만들었다.

돌고래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자료 덕분에 우리는 돌고래의 내적인 삶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돌고래가 이전에는 인간에게만 그리고 아마도 다른 고등 영장류에게 있다고 생각되었던 정교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돌고래가 구문, 의미, 어순을 이해하며, 거울 자아 인식, 가리키는 제스처의 이해,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의 이해에 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시각 또는 반향 정위를 사용하여 동일한 추상적인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돌고래에게 문화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범고래는 각 가족 집단에게 고유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는 음성 방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큰돌고래는 해저를 따라 먹이를 찾아다닐 때 해면을 도구로 사용한다.

Exercise 2 기술 중심적 해결책에 대한 맹목적 신뢰의 문제점

Many people, including those in most governments, place their faith in new technologies as the solution to every present and indeed future ecological problem.

And it is true that appropriate, clean, and affordable technology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resolving the ecocrisis; but it cannot bear the weight of cornucopian dreams.

Technology is vanishingly unlikely to be able to compensate for uncontrolled expansion of either population or consumption.

For example, it tends to become increasingly expensive and/or specialized, and technological 'solutions' notoriously tend to create new problems, which then seem to require more technological intervention, and so on.

Still more fundamentally, such 'solutions' to ecological problems ignore the urgent need actually to reduce consumption (thereby, of course, spending less) and lock us into a collective mindset – run by technoscience, financed by capital, and protected by state power – which is a principal cause of the problems.

Then more of that cause can only be perceived, with increasingly desperate denial, as the only solution.

대부분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그리고 실제로 미래의 모든 생태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기술에 믿음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적절하고 청정하며 적당한 가격의 기술이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풍요로운 꿈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다.

기술이 인구나 소비의 통제되지 않은 팽창을 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예를 들어, 기술은 점점 더 비싸지고/비싸지거나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는데, 그런 다음 그 문제들은 더 많은 기술적 개입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 같다.

한층 더 근본적으로는, 생태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결책'은 실제로 소비를 줄여야(그럼으로써 당연히 더 적게 써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무시하고, 집단적 사고방식, 즉 기술 과학에 의해 운영되고 자본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며 국가 권력에 의해 보호되는 사고방식에 우리를 가두는데, 그것이 그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면 점점 더 필사적으로 부인하면서도, 그 원인의 더 많은 부분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이다.

Exercise 3 동물 복지 법률에 대한 상충되는 견해

Many countries have had legislation to protect animals in place for decades, even for centuries.

This legislation may regulate practices such as slaughter or experimentation, or may be more generally aimed at preventing cruelty.

But whether this kind of legislation is adequate lies at the heart of a key debate between those who argue, in a legal context, for the promotion of animal welfare and those who argue for the promotion of animal rights.

Those who argue for animal welfare seek increased legal protection for animals from human-inflicted pain and other kinds of suffering (for example, insufficient food and space).

Animal rights advocates maintain that this welfare legislation does not go far enough.

Welfare legislation accepts, they argue, that animals may be used by humans for food and as experimental subjects; it merely tries to curb the worst excesses of these practices.

The problem, on the rights view, is more fundamental than this: animals are not the kinds of thing that humans should use in this way at all.

The problem, therefore, is not one about treating animals inhumanely, but instead one about understanding them as human resources.

많은 국가에서 수십 년, 심지어 수 세기 동안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법률은 도살이나 실험과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잔혹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법률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법적 맥락에서 동물 '복지' 증진에 찬성론을 펴는 사람들과 동물 '권리' 증진에 찬성론을 펴는 사람들 사이 주요 논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

동물 복지에 찬성론을 펴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하는 고통과 다른 종류의 괴로움(예를 들어, 충분하지 못한 음식과 공간)으로부터 동물에 대한 강화된 법적 보호를 추구한다.

동물 권리 옹호자들은 이러한 복지 법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 법률은 동물이 인간에 의해 음식과 실험 대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데, 그 법률은 단지 이러한 관행의 가장 심한 잔혹 행위를 억제하려 할 뿐이라는 것이다.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데, 즉 동물은 결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동물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동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Exercise 4 고대 그리스의 교육

In ancient Greece, education consistently occurred in the context of the personal relations among teachers and students.

Most often, it involved a tutor who traveled to homes or other community locations where they worked with individuals or small groups of students.

Additionally, collecting teachers and students into learning communities was another approach to creating a social learning context, such as Plato's Academy and its descendent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d teacher was consistently seen as essential: "advanced education involved a deep and absolutely personal bond between teacher and pupil, a bond in which ... emotion, if not passion, played a considerable part."

Indeed, Plato, in the Dialogues, supported the active engagement of students in learning.

Much of what was learned occurred through these interpersonal oral relationships rather than through written materials.

고대 그리스에서 교육은 일관되게 교사와 학생 간의 개인적 관계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아주 많은 경우, 교육은 가정이나 다른 공동체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개인 교사를 필요로 하였는데, 거기서 개인 교사들은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을 학습 공동체로 모으는 것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그 후대의 조직과 같은 사회적 학습 환경을 만드는 또 다른 접근법이었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등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깊고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유대, 곧... 열정은 아니라 해도 감정이 상당한 역할을 한 유대를 포함했다."

실제로 플라톤은 Dialogues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했다.

학습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글로 쓰인 자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술적인 관계를 통해 생겨났다.

Exercise 5 지나친 인정 욕구의 원인

The search for approval has its own challenges. In the formative period of childhood the child seeks the approval of its caretakers as a means of securing their love.

This persists into adulthood where there is a general need for the approval of others, especially loved ones, or those who are admired or looked up to because they have particular qualities or skills.

But this can turn into an unhealthy, excessive need for approval if the individual is uncertain about his or her own independence, rights, responsibilities and effectiveness (the ability to influence things).

The constant searching for approval is based on the fear that the other's love will be withdrawn and that you will be left helpless and unloved. This, of course, is an extension of a childhood pattern whereby the individual feels that he or she never received enough (unconditional) approval or love from her or his parents.

As a result they learn to feel unworthy and that they don't have the right to expect unconditional love and approval.

인정을 구하는 일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어린 시절의 형성기에 아이는 양육자의 사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인정을 구한다.

이는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자질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일반적인 욕구가 있는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자신의 독립성, 권리, 책임, 효능감(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정에 대한 불건전하고 지나친 욕구로 변할 수 있다.

끊임없는 인정 추구는 상대방의 사랑이 철회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무력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근거한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무조건적인) 인정이나 사랑을 결코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아동기 패턴의 연장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배운다.

Exercise 6 동기 부여에 대한 연구

Motivation has an extensive history in academic research.

Some of the earliest work on this topic was by Clark Hull, who observed that effort invested in accomplishing a goal increases as goal attainment becomes more likely.

Although this conclusion was drawn by observing rats running a maze to achieve a food reward – with speed increasing as distance to the food decreased – it is nevertheless useful in seeking to explain goal pursuit in humans.

Indeed, much of the modern work on motivation has built on this foundation to understand what promotes goal pursuit and achievement.

For example, mirroring Hull's rats, consumers have been shown to accelerate coffee purchases as they approach the end of a '10th free' loyalty card.

In the sports context, athletes are often observed to give 'one last push' as they complete a given event, and this is also often a feature both of others' efforts to motivate them despite their fatigue, and of their own self-talk.

This method of motivation can also be seen when a person puts in extra effort as they reach the end of a given exercise routine.

Given the centrality of motivation to success in most life domains, this topic has fascinated scholars in a range of disciplines in the social sciences, including economics and psychology.

동기 부여는 학문적 연구에서 광범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초기의 연구 중 일부는 Clark Hull에 의한 것인데, 그는 목표 도달 가능성이 더 높아질수록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비록 이 결론은 쥐들이 먹이 보상을 얻기 위해 미로를 달리면서 먹이까지의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도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목표 추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유용하다.

실제로 동기 부여에 관한 현대의 연구의 많은 부분이 목표 추구하고 성취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이 토대를 기반으로 해 왔다.

예컨대 Hull의 실험 쥐와 유사하게, 소비자들은 '10번째 무료' 고객 카드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커피 구매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의 상황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주어진 해당 경기를 마칠 때 '마지막 전력투구'를 가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 이것은 또한 많은 경우 그 선수들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의욕을 갖게 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선수 자신의 자기 대화 둘 다의 특징이다.

이러한 동기 부여 방식은 또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운동 루틴의 마지막에 도달하면서 추가 노력을 기울일 때에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성공에 대한 동기 부여의 중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주제는 경제학과 심리학을 포함하여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자들을 매료시켰다.

Exercise 7 충동적 행동의 원인

Every action starts in the mind.

We may know about the reasoned thought process in most cases but there are instances where one may not be able to identify the thought process.

If a person does something stupid or atrocious against his fundamental nature, he may say that he had lost his mind momentarily.

When pressed, he may be unable to offer any other explanation for his actions.

He may not be able to identify it but the actual cause might be a result of some kind of repressed emotion surfacing in impulsive behaviour.

Impulsive behaviour is a result of emotive build-up and appears as sparks in our mind leading to instantaneous rational or irrational behaviour.

The conscious mind may not be able to discern and identify the logic or the rationale behind many of our actions.

Though mankind is endowed with rational thinking, irrational actions happen often.

The outcome will largely depend upon mental maturity.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 알 수도 있지만, 그 사고 과정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근본적인 본성에 반하는 어떤 어리석거나 극악무도한 일을 한다면, 그는 자신이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압박을 받으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실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실제 원인)은 어떤 억눌린 감정이 충동적 행동으로 드러난 것의 결과일 수도 있다.

충동적인 행동은 감정 축적의 결과이며 우리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나타나 즉각적인 이성적 혹은 비이성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의식적인 마음은 우리 행동 중 많은 것의 이면에 있는 논리나 근거를 분간하고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비록 인류는 이성적인 사고를 타고났지만, 비이성적인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그 결과는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ercise 8 사고 패턴이 일상 활동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

It is human nature for our brains to form thought patterns — neural pathways or so-called rivers of thinking — to get through our daily activities.

To better understand this concept, developed by Edward de Bono, create a mental image of water running down a mountain.

It may start as a series of slow drips or scattered streams, but the water eventually comes together and flows in the same direction, creating deep grooves or pathways over time — even cutting through rock and creating gullies.

These pathways are a good analogy to what happens with our thinking.

We develop deep mental pathways that influence how we interpret information, what we see in the world around us, and how we respond.

It's not all bad.

These rivers of thinking help us extract order, make quick decisions, and create expertise.

These patterns are why we can go through our morning routine without much thought or drive to work without directions.

They help us survive and are essential to how we work and live.

우리의 뇌가 우리의 일상 활동을 하기 위해 사고 패턴, 즉 신경 경로 또는 소위 생각의 강을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Edward de Bono에 의해 개발된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심상을 만들어 보라.

그것은 일련의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드문드문 있는 물줄기로 시작할 지도 모르지만, 그 물은 결국 하나로 모여 같은 방향으로 흐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홈이나 경로를 만들고, 심지어는 바위도 가르고 골짜기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로는 우리의 사고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좋은 비유이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 우리 주변 세계에서 보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정신적 경로를 발달시킨다.

그것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의 강은 우리가 질서를 끌어내고, 빠른 결정을 내리며, 전문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패턴 덕분에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아침 일과를 하거나 길 안내 없이도 운전해서 출근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필수적이다.

Exercise 9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청소년의 지위

The emerging power shift, where smaller and edge players are gaining more visibility and voice,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children and youth.

If we look at children and youth through the lens of digital media, we have a population that has been historically subject to a higher degree of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control in the kinds of information and social communication to which they have access.

This is one reason why the alchemy between youth and digital media has been distinctive: it disrupts the existing set of power relations between adult authority and young people.

While many studies of children, youth, and media have for decades stressed the status of young people as competent and full social subjects, digital media increasingly insist that we acknowledge this viewpoint.

Not only must we see youth as legitimate social and political actors, but we must also recognize them as potential innovators and drivers of new media change.

더 소규모이고 주변부에 있는 참가자들이 더 많은 가시성과 발언권을 얻고 있는, 새로 등장하는 권력의 이동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바라보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사회적 소통의 종류에서, 역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통제를 받아 온 인구 집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과 디지털 미디어 사이의 마법 같은 결합이 독특했던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것은 성인의 권위와 젊은이들 사이의 기존 권력 관계 형태를 혼란에 빠뜨린다.

수십 년 동안 아동, 청소년,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유능하고 완전한 사회적 주체로서의 젊은이들의 지위를 강조해 왔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가 이 관점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청소년을 정당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뉴 미디어 변화의 잠재적 혁신가이자 추진자로 인식해야 한다.

Exercise 10 나무 외관에 대한 암묵적 지침

In the forest, there are unwritten guidelines for tree etiquette.

These guidelines lay down the proper appearance for upright members of ancient forests and acceptable forms of behavior.

This is what a mature, well-behaved seasonal tree looks like.

It has a ramrod-straight trunk with a regular, orderly arrangement of wood fibers.

The roots stretch out evenly in all directions and reach down into the earth under the tree.

In its youth, the tree had narrow branches extending sideways from its trunk.

They died back a long time ago, and the tree sealed them off with fresh bark and new wood so that what you see now is a long, smooth column.

Only when you get to the top do you see a symmetrical crown formed of strong branches angling upward like arms raised to heaven.

An ideally formed tree such as this can grow very old.

Similar rules hold for conifers, except that the topmost branches should be horizontal or bent slightly downward.

숲에는 나무 에티켓에 대한 암묵적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고대 숲의 똑바로 선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적절한 외관과 허용되는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성숙하고 제대로 자란 계절 나무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규칙적이고 질서 정연한 나무 섬유 배열이 있는 깨끗한 줄기를 가지고 있다.

뿌리는 사방으로 고르게 뻗어 나가 나무 아래의 땅속까지 내려간다.

젊었을 때 그 나무는 자신의 줄기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가는 가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그 가지)들은 오래전에 죽었고, 그 나무는 새로 생긴 나무껍질과 새로운 목질로 그것들을 봉인하였으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길고 매끈한 기둥이다. 꼭대기에 도달해야만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린 것처럼 위로 비스듬히 뻗은 튼튼한 가지들로 형성된 대칭적인 수관(樹冠)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상적으로 형성된 나무는 아주 오래 자랄 수 있다.

맨 꼭대기의 가지들이 수평이거나 약간 아래로 구부러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비슷한 규칙이 침엽수에도 적용된다.

Exercise 11 기술과 지식 생산, 인식론의 연관성

Heidegger thought of technology as a 'bringing-forth', something that produces something.

Interestingly enough, the Latin combination of pro and ducere in the word production also refers to something that can be called 'bringing forth' (pro=forward and ducere=to lead).

Technology, then, is deeply connected to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nd hence to epistemology.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more administrative pedagogical technologies used in teaching and learning bring with them tools for efficiency in educational spheres.

It is also connected to the critique of technology and its critical uses, that is, the deeper penetration of technological processes that help us be aware of the worlds (in the phenomenological sense) we inhabit, be it in the observation of new technologies of seeing or those of hearing.

Heidegger는 기술을 '앞으로 이끌어내기', 즉 무언가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매우 흥미롭게도, 생산이라는 단어에 있는 라틴어의 'pro'와 'ducere'의 조합 또한 '앞으로 이끌어내기'(pro = 앞으로, 그리고 ducere = 이끌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기술은 지식의 생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식론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교수와 학습에 사용되는 더 많은 관리용 교육 기술들이 교육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위한 도구들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그것의 비판적 활용, 즉 새로운 시각 기술의 관찰에서든 청각 기술의 관찰에서든, 우리가 거주하는 (현상학적 의미에서의) 세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과정에 대한 더 깊은 통찰과도 연결되어 있다.

Exercise 12 팬 편집자의 정보 탐색

Fan editors often consult "specialist sources" to track down information about their media interest(s).

These works are considered authoritative due to their reputation for accuracy and focused coverage, and after sufficient "enculturation," fan editors will often learn to seek out these sources whenever an information need arises.

While fan editors usually seek information individually, they will sometimes collaborate with others who share their taste in media.

This collaboration tends to emerge spontaneously, often in response to a lack of accessible information, and it usually occurs within established groups of editors.

And regardless of whether information seeking is done individually or collaboratively, fan editors commonly face several key informational barriers. Paywalled sources, for instance, often block off content, and link rot can hinder an editor's ability to locate information.

Language barriers can also hinder editors, leading some to use machine translation tools or to seek help from multilingual colleagues.

Finally, the issue of "recentism"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fan editors to find pre-digital sources.

팬 편집자들은 미디어와 관련된 자신의 관심사(들)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자주 '전문 출처'를 참고한다.

이러한 출처는 정확성과 집중적인 취급 범위에 대한 그들의 평판 때문에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충분한 '문화 적응' 후에, 팬 편집자들은 정보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출처를 찾아내는 법을 자주 익히게 될 것이다.

팬 편집자들은 대개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지만, 그들은 때때로 미디어 취향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것이다.

이러한 협업은 흔히 이용 가능한 정보의 부족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대개 기존의 편집자 집단 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정보 탐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든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팬 편집자들은 흔히 몇 가지 주요 정보 장벽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유료화된 출처는 콘텐츠를 자주 차단하고, 링크 로트(시간이 지나면서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는 편집자의 정보를 찾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언어 장벽도 편집자를 방해하여, 일부는 기계 번역 도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주의(recentism)'의 문제는 흔히 팬 편집자들이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